

이날 환자 3명이 치료비 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배아현 가수의 무대.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공연 모습.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8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16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500여 관람객들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자비나눔 시간을 가졌다.

가을 정취 가득 불암사에 울린 생명나눔 선율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9.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가을 국화 향기로 가득 찬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공연을 즐기는 500여 관람객들은 풍성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자비나눔으로 마음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10월 18일 '제16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2007년 시작해 올해 16회째를 맞은 산사음악회는 대중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익선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의 밝고 유쾌한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 1부는 일면 장학금 전달식, 법인 발전기금 전달식, 환자 치료비 전달식, 생명나눔 장학금 전달, 2025년 우수직원 표창, 홍보대사 위촉식, 인사말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불암사 합창단의 신명 나는 무대에 이어 다양한 전달식이 이어졌다.

첫 순서는 일면 장학금 전달식. 일면장학회는 배움에 정진하는 학인 스님들과 불자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장학회 이름은 조계종 호계원장과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인 두산 일면 대종사의 법명에서 따왔다. 매년 약 30여 명의 학인 스님과 불자 학생들에게 총 3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총 20명으로, 장학금 총액은 1700만원이다. 일면장학회 이사장 법일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 혜월 스님과 유승원 남양주 광동고 학생 등 장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학인 스님에게는 각 100만원, 학생들에게는 각 50만원이 수여됐다. 이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는 법인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부산 소림사 주지 종인 스님이 1000만원을 후원했다. 전달식에는 상좌 우석 스님이 참석했다.

산사음악회의 또 하나의 뜻깊은 순서, 환자 치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연간 6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억원의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 3명에게 총 500만원이 지원됐다. 전달식에는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대신해 환자의 부모가 함께했다. 일면 스님은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환우 가족들에게 저서 〈행복한 빈손〉과 단주를 선물하기도 했다.



일면장학회는 장학생 20명에게 1700만원을 전달했다.

생명나눔, 10월 18일 제16회 음악회
500여 명 동참 가을정취 · 나눔 만끽
배아현 · 비니쌤 · 최우진 가수 등 출연
일면 장학금 · 환자 치료비도 전달
"우리 마음 하나로 잇는 자리" 염원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된 문서연 프로골퍼.

2014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해 온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회장 전용현)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400부를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장학금 400만원을 수여하며 참사랑 봉사단을 응원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문서연 프로골퍼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는 장기기증·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캠페인, 강연, 언론활동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서연 프로골퍼는 일면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스포츠를 통해 생명나눔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격적인 산사음악회로 진행된 2부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이 포문을 열었다. 개그맨 엄영수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의 무대에 이어 배아현, 최우진, 비니쌤, 주권기 등 초대 가수들이 출연, 깊어지는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보였다.

일면 스님은 "이번 음악회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울림과 정서를 나누는 장이며 생명나눔과 자비 실천을 행하는 자리"라면서 "무대 뒤의 정성, 무대 위에서 빛나는 예술가들의 혼과 자리에 함께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음악회의 진면목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악회가 자연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잇길 바란다"면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공연장 앞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이 진행됐다. 또 의류 등 생필품을 비롯해 국수, 파전 등 먹거리를 판매하는 바자회가 열려 환자치료비 모연도 이뤄졌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이다. 1994년 설립 이래 장기기증·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 돕기, 해외 의약품 및 문화교류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을 위한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선율 위의 나눔 춤추는 마음"
2025.11.22 토요일
오후 4시 - 6시
중랑구청 대강당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전석 2만원
티켓 문의 02.734.8051
※ 본 공연의 티켓 판매금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농협 053-17-001346
주최 · 주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MaHa Dance Company
